

헤노코 농성장 방문 연설문 (2018.6.22.)

이시우

헤노코의 풍경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저는 머리카락 가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물어보신 분이 자답하시기를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어딘가 아프게 되면 온통 신경이 아픈 곳에 집중되고 아픈 것이 치유될 때까지 몸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었듯이 우리사회의 중심도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중심도 전쟁과 기아와 빈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결코 세계는 평화롭고 조화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변방중의 변방인 헤노코는 가장 큰 아픔을 함께함으로 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어에 subject 라는 말이 있습니다. sub와 ject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아래에 던져진 자란 의미입니다. 발아래 던져진 자이기에 이 말은 근대이전에는 하인, 피조물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근대혁명을 통과하면서 이 단어는 주인, 주체라는 정반대의 말이 되었습니다. 절벽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자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의존해야하는 가련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피조물이고 하인입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조차 놓을 수 있는 용기는 대장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아등바등 매달리다가 떨어지는 사람과 스스로 손을 놓고 떨어지는 자의 차이가 피조물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아래에 던져지는 자와 스스로 아래에 자신을 던지는 자의 차이가 이 단어의 뜻을 정반대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떠밀려 이곳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이곳에 던졌기에 피조물이 아니라 주인이 된 것입니다.

헤노코는 미군기지반대운동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투쟁해왔습니다.

기다림이 간절한 자는 먼 곳을 봅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노동자들이 과격한 것은 자본가처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지배 세력은 저항세력을 조급하게 몰아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한국의 투쟁에서 “질긴 놈이 이긴다”는 구호가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안의 조급함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중운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역량입니다.

한편 우리는 먼 곳을 보되 순간순간 일의 순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장을 뉘서는 안되겠습니다. 중국의 고전 『예기(禮記)』에 ‘일이 순서를 얻으면 그것을 예’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란 나를 떳떳이 세우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일을 순서있게 하면 내가 당당해지고 상대방을 설복시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일의 순서를 잘 잡는 것은 고도의 정치투쟁입니다.

헤노코에는 투쟁의 거의 모든 경험이 녹아져있습니다.

장자에 목계(木鷄)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목계는 ‘나무 닭’이란 말입니다.

왕이 좋은 싸움닭을 선물받게 되어 기성자라는 투계의 명인에게 이 닭을 훈련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0일이 지나 기성자에게 찾아가 “이제 됐느냐”라고 묻자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

은 상대 닭이 싸움을 걸기도 전에 먼저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10일이 지나 왕이 찾아가 “이제 됐느냐”라고 묻자 “아직 멀었습니다. 이전처럼 먼저 싸움을 걸진 않지만 다른 닭이 싸움을 걸어오면 거기에 영락없이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10일이 지나 왕이 찾아가 “이제 됐느냐”라고 묻자 “이제는 됐습니다. 어떤 닭이 싸움을 걸어와도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처럼 꼼짝하지 않고 그 닭을 노려만 봅니다. 그러면 싸움을 건 닭이 뒷걸음쳐 도망가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다스려 싸움을 참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스릴 수 있어도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 오는데 그것을 참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이 고사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판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경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공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평화의 내공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선은 평화를 상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화만들기를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에 만든 평화를 지키는 평화지키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기에 평화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실천하다보면 밖의 평화를 위해 싸우느라 내안의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아는 것은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된 것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체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평화를 즐기는 자는 무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공을 가질 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이 더 많은 경험과 교훈을 빚어내어 그 결과 빛나는 승리를 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